

시니어 사회공헌 문화 확산을 위한 실험

- 희망제작소 해피시니어 어워즈와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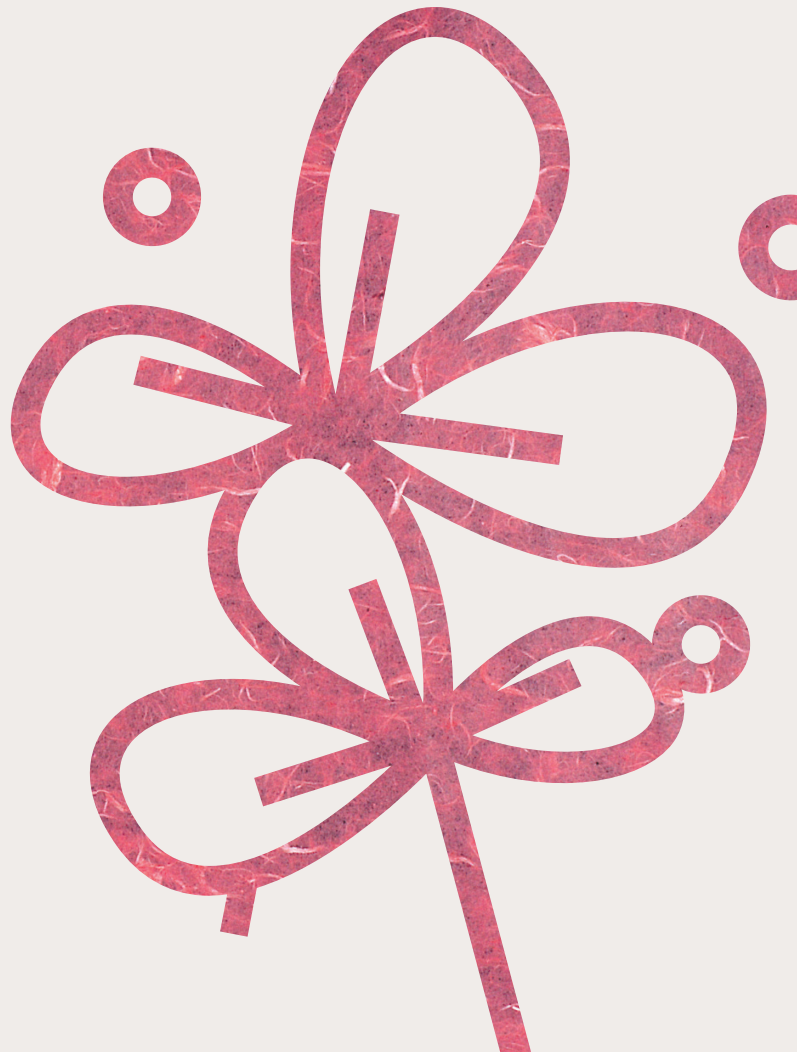
목차

개요

1. 배경
2. 희망제작소의 경험과 도전
3. 시니어 사회공헌활동 문화 확산 방향

작성 | 시니어사회공헌센터

정창기 센터장 | mayday3@makehope.org



개요

저출산-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한국 사회에서도 노인과 퇴직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동안 이들에 대한 정부 정책은 ‘소득’과 ‘복지’에 집중되어 왔다. 특히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추진된 정책들도 노후소득보장이나 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이 중심이 되어왔다(지은정 외,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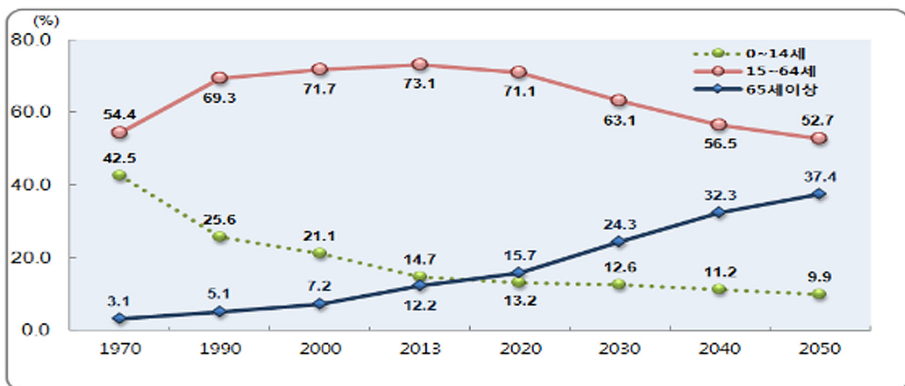
희망제작소는 다양한 경력과 경험, 전문성을 가진 시니어들이 사회공헌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그와 관련된 교육, 지원 및 캠페인 프로그램을 2007년도부터 진행해왔다.

지난 6월 보고서(정창기, 2013)를 통해서도 희망제작소가 6년간 진행한 시니어 사회공헌활동 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정리해본 바 있다.

여기서는 시니어들의 사회공헌활동 영역을 확장한 프로그램인 희망제작소 해피시니어 어워즈(Happy Senior Awards)와 시니어 드림 페스티벌(Senior Dream Festival)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후 방향성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1. 배경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2.2%에 달하는데, 1970년 3.1%와 비교했을 때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연령대별 인구 구성의 변화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 연령대별 인구 구성의 변화 (출처: 통계청, 2013)

고령자에 대한 담론은 주요하게는 노년부양비의 사회적 부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률 그리고 최근에는 노령연금을 둘러싸고 형성되어 왔다. 일례로 2013년의 경우 생산가능 인구 6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18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5명이 고령자 1명을, 2050년에 이르면 약 4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13). 이런 까닭에 2012년부터 정년연장과 관계되는 대책과 법률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평균(기대)수명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건강의 질도 향상되면서, 중·고령자들을 사회적 부담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자원·주체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희망제작소는 이들의 사회공헌활동 또는 사회참여활동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기업체 CSR을 설명할 때 비교적 분명하게 사용되는 ‘사회공헌활동’이라는 용어를 사회구성원 일반에게 확장할 때, 그 의미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많다. 일단 여기서는 사회공헌활동을 ‘개인적·사적 이익보다는 사회적·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사회공헌이라는 단어보다 좀 더 넓은 범위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이다. 넓게 사용할 경우 사회참여는 ‘개인적 경제활동에서부터 지역사회 조직이나 단체 활동, 정치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한다. 한편 협의의 개념으로서 사회참여란 ‘한 사회집단이 자신의 필요와 요구를 나타내고 공동이익을 옹호하며 특정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적 활동’ 정도로 이야기될 수 있다.

사회참여, 사회활동 또는 사회참여 활동에는 여가 및 레저 활동, 사회봉사·공헌 활동, 경제 활동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그 활동의 내용에는 문화, 경제, 정치, 교육, 사회 등 다양한 주제가 포괄될 수 있다(이금룡, 2012).

조금 더 학술적으로 접근해보자. 시민연계(civic engagement) 또는 시민연계 활동의 의미를 ‘지역사회(공동체)의 공동선을 달성하고 타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민의 지역사회(공동체) 참여 활동’(Adler & Goggin, 2005)으로 볼 경우, 사회참여와 사회공헌은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시민연계의 대표적인 활동이 자원봉사 활동과 시민서비스(civic service)활동이다. Adler와 Goggin 외에도 많은 학자들은 시민연계(활동)를 ‘공동체 및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한 활동의 수준과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희망제작소 시니어사회공헌센터가 사용하는 ‘사회공헌’이라는 개념 역시 협의의 사회참여 또는 시민연계(활동)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원(봉사)활동, 사회적 여가 활동, NPO/NGO 참

여 활동, 사회적경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참여 활동 등이 그에 해당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자원봉사 활동은 일정한 경제적 보상이 따르는 봉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히 경제적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기여라는 가치를 갖는다는 점에서 시니어들의 사회참여와 공헌을 유도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영역이다(정창기, 2013).

중·고령자들이 사회참여 활동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삶에 대한 만족도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부족한 경제활동인구가 보충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이 확장될 수 있다. 지은정 등(2012)은 중·고령자의 사회참여의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사회참여는 ① 생활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 ②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요인 ③ 건강을 유지·향상 ④ 노년기 발달과업 수행에 기여 ⑤ 개인 성장을 촉진 ⑥ 관계망을 유지하는 데 기여 ⑦ 노인의 사회적 통합을 증진 ⑧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기여 ⑨ 고령화 사회에 대한 주요 대응책이 된다.

전체 연령대를 분석해보면, 지난 1년(2012. 5. 11 ~ 2013. 5. 10) 동안 ‘계’나 ‘동창회’ 등 각종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사람의 비중이 50.1%로 나타난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단체 참여율이 계속 증가하여 50대의 참여율(59.9%)이 가장 높았고, 60세가 넘어가면서 급속하게 감소하여 44.1%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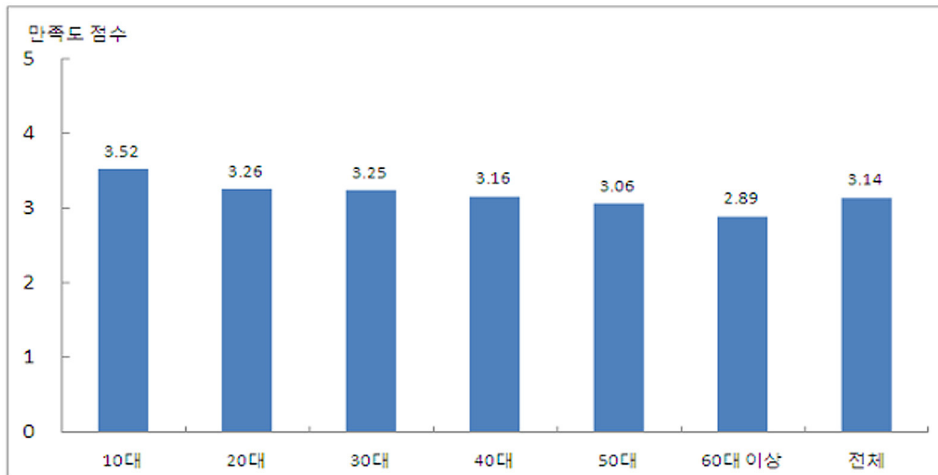
참여 단체별로 보면, ‘친목 및 사교단체(계, 동창회 등)’에 참여한 사람이 75.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취미, 스포츠 및 레저단체(32.8%)’ ‘종교단체(26.4%)’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친목 및 사교단체’ 외에 40대 이전은 ‘취미, 스포츠 및 레저 단체’에 주로 참여하다가, 50대 이후부터 ‘종교단체’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통계청, 2013b).

광의의 사회참여 활동 중에서도 좀 더 직접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가까운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은 크게 떨어진다.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9.9%로 나타났다. 10대(80.1%)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7.8%)이 가장 낮았다. 다만, 자원봉사 활동 참여 평균 횟수와 시간에서는 60세 이상에서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후 2년 이내 ‘자원봉사에 참여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3.2%로 나타났는데, 여기서도 60세 이상이 17.3% 그리고 50~59세 응답률이 39.1%로 가장 저조하다(통계청, 2013b).

	자원봉사 활동 참여경험		자원봉사 활동 참여횟수 및 시간		향후 2년 이내 참여 의향	
	있음	없음	평균 횟수	평균 시간	있음	없음
2011년	19.8	80.2	7.1	24.7	45.6	54.4
2013년	19.9	80.1	7.6	25.1	43.2	56.8
도시(동부)	19.9	80.1	7.7	25.3	44.4	55.6
농어촌(읍면부)	19.8	80.2	7.0	24.1	37.8	62.2
남 자	19.6	80.4	6.7	23.7	42.5	57.5
여 자	20.1	79.9	8.4	26.4	44.0	56.0
13~19세	80.1	19.9	5.4	16.4	77.4	22.6
20~29세	13.7	86.3	7.4	28.7	52.3	47.7
30~39세	11.2	88.8	7.6	27.3	45.1	54.9
40~49세	17.3	82.7	9.3	30.5	46.2	53.8
50~59세	14.5	85.5	9.7	33.4	39.1	60.9
60세 이상	7.8	92.2	12.3	39.5	17.3	82.7

[표 1] 자원봉사 활동 참여 현황 (단위 : %, 회, 시간)

통계청(2013)에 따르면, 2003 ~ 2012년 사이 한국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3 ~ 3.14 수준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관계망이 좋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난다. 이를 국제적인 기준에서 살펴보면, 한국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서 6.0점으로 OECD 평균 6.6점보다 낮다. 한국보다 높은 점수의 국가가 25개, 한국과 같거나 낮은 점수의 국가가 10개 국가이다. 연령대별 자원봉사 활동을 포함한 사회단체 참여율은 삶에 대한 만족도(overall life satisfaction)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같은 조사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 기준으로 10대의 만족도가 평균 3.52로 가장 높은 반면에, 60대 이상의 만족도는 2.89로 전체 평균 3.14 뿐만 아니라 전체 연령대에서도 가장 낮다. 사회참여율이 삶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하는 유일한 변수는 아닐지라도 주요 요인임에는 틀림이 없다.



주: 1) '삶에 대한 만족도'는 전국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면, 직업, 건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까지 5점 척도로 조사하였음.
 2) 만족도 점수는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1~5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그림 2] 연령별 삶에 대한 만족도 점수: 2012 (출처: 통계청, 2013c)

시니어 및 중·고령자들의 사회참여가 높지 않은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유럽을 비롯한 여타의 OECD 국가에 비해서도 발전되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노인 빈곤율은 2010년 기준으로 49.3%로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고령자는 사회공헌활동보다는 직접적으로 노동시장 참여욕구를 가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중·고령자들의 고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조사된다. 최근 조사(통계청, 2013c)에 따르면 55~70세의 중·고령자들 중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59.9%로 나타나는데, 그 주된 이유가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이다.

그나마 사회참여의 내용이 대부분 종교단체나 사교단체 등으로 국한되어서, 사회참여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압축적 근대화와 초고속 성장의 과정 속에서 사회는 '생산적 노동'에 대해서 과도하게 가치부여를 해왔다. 그러기에 직업적 노동과 일이 아닌 다양한 사회참여와 사회공헌활동이 갖는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산력이 떨어지는 중·고령자들은 사회적 부담으로만 인식되어 왔다.

제도적으로도 중·고령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 및 모델이 발전되지 못했다. 최

근 들어서 사회참여에 대한 이들의 수요와 욕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과 시설 등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2. 희망제작소의 경험과 도전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시니어들의 사회공헌활동 및 사회참여활동이 높지 않은 가운데서, 희망제작소는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활동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7년에 걸쳐서 ‘행복설계아카데미’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퇴직(예정)자들이 제2인생을 설계하고 사회공헌활동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정창기, 2013).

여기서는 그 외에도 시니어들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사회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사회공헌활동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경험 및 실험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해피시니어 어워즈(Happy Senior Awards)

희망제작소는 중·고령자들에게 모델이 될 만한 사회공헌활동 사례를 발굴하는 한편으로 그러한 문화를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2008년부터 ‘해피시니어 어워즈’를 진행해왔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후보자들의 최근 활동 및 공적을 평가대상으로 하면서, 활동의 지속성, 사회적 의미 및 파급력 그리고 참신성과 사회혁신성 등을 심사의 기준으로 삼았다. 추천된 후보자의 활동 및 공적을 엄밀하게 검증하는 한편, 현장 실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처음 출발한 2008년도에서부터 2011년도까지는 크게 세 부문으로 나뉘어서 시상이 이뤄졌다. 먼저, ‘희망 씨앗상’이 있다. 스스로 새로운 NPO(비영리단체; Non-Profit Organization)를 설립해서 사회변화를 이끌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니어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물론 수상 자격에는 NPO 설립자뿐만 아니라, 공익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새롭게 제안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들도 포함된다.

대기업의 임원으로 퇴직한 후 사회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시니어들과 함께 비영리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서재경 씨가 이 분야의 1회 수상자이다. 이 단체는 지방의 대학생들에게 참된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감성, 인문학 그리고 취업에 필요한 기업 실무를 전수하는 한편 봉사활동

을 필수로 진행하고 있는데, 전액 무료로 운영된다. 지역의 인재를 양성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적지 않은 시간과 돈을 들여가면서 단체를 설립하고 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무엇보다도 ‘보람’이 있으니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몇몇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작은 모임이지만, 저는 이 작은 텃밭에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라고 답했다. 그를 모델로 삼아 그와 함께 하는 여러 후배들이 바로 이 상의 또 다른 보람이자 효과라고 생각된다.

둘째, ‘새삶 개척상’이 있다. 이 상은 퇴직 후 새롭게 NPO 활동에 도전해서 보람된 인생 후반전을 용기 있게 펼치고 있는 시니어, 또는 퇴직 후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능력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시니어들에 주어진다.

언론사 영업직에서 퇴직하고 주거복지연대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박병창 씨가 이 부문 제3회 수상자이다. 그는 주거복지연대에서 저소득층 일자리 상담과 어린이 공부방 개설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인천남동생활복지센터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과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분명 쉽지 않은 일이며 여러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세상에 쉬운 일이란 없잖아요. 시작을 했으니 끝을 봐야지요.”라고 이야기하는 박병창 씨는 퇴직 후 새로운 사회참여를 모색하고 있는 이들에게 분명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행복 나눔상’이 있다. 퇴직 후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묵묵히 이웃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시니어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4회 수상자인 남충일 씨는 중소기업의 대표로 현직생활을 마친 후, 일흔이라는 나이에 사회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비록 출발은 조금 늦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기아대책본부와 서울의료원에서 통번역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시에 2012년도부터는 지하철역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내봉사까지 하고 있다. “뭘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게 없습니다. 지금처럼 건강하고 바쁘게 살기를 바랍니다. 주면서 얻는 행복은 정말 대단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현직’으로 살아가고 있다.

풍부한 삶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사회공헌활동과 새로운 사회참여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니어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한편으로 그러한 문화를 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시행되어온 해피시니어 어워즈를 통해 2011년도까지 총 13명의 수상자가 배출되었다.

한정된 자원과 유사 프로그램의 확산 등으로 인해 2012년도 한 해는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정리하는 동시에 이후의 계획을 모색하는 시기였다. 2013년도에는 기존 3개 부문별 수상자 선정 방식에서 일부 바뀐 형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새로운 공익(비영리) 단체를 설립해 사회변화를 이끌고 공익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니어, 공익(비영리) 단체 활동에 참여해 인생 후반부를 용기 있게 개척해 나가고 있는 시니어,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이웃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시니어, 퇴직 후 지역에 정착하면서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총 5명의 수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부문별 1인 선정이라는 형식을 강조하기 보다는 상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파급력을 넓히기 위한 선택이었다. 9월 1일 사업홍보를 시작해서, 후보자들 추천을 접수하고,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와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수상자를 선정해서 인터뷰를 마친 후, 11월 28일 최종 행사를 가졌다. 많은 상금이 주어지는 대규모 시상식에는 규모가 미치지 못했지만, 전임 수상자와 올해 수상자 그리고 수상자 가족과 지인들이 서로의 활동을 격려하고 축하해주는 자리가 되었다.

외국의 행정부에서 정년퇴직 후 한국에 돌아와서 “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좋은 지방의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열린의정봉사단’을 만들어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승준 씨, 육군 장교로 복무 중 당한 사고 때문에 장군 진급 직전 단계에서 예편하였고 사고 후 후유증 때문에 지체장애를 겪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 녹음 봉사를 150개월 동안 꾸준히 하고 있는 박생규 씨, 의사라는 직업 때문에 알게 된 불법 장기이식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 활동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윤리적인 의사가 되고자 하는” 이승원 씨, 62세의 나이에 교수생활을 마치고 한국국제기아봉사단원으로서 우즈베키스탄에서 농촌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귀국 후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자 생활공동체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는 정원지기를 소망”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이종수 씨, 외국의 여러 경험과 사례를 접한 후 한국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소액대출 기관인 ‘사회연대은행’을 만들어 활동하고,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빈곤에 이르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2012년 ‘(재)한국사회투자’를 설립한 또 다른 이종수 씨, 이렇게 다섯 명은 2013년 희망제작소가 한국사회에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해피 시니어들이다.

2) 시니어드림페스티벌(Senior Dream Festival)

해피시니어 어워즈가 사회공헌활동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시니어들을 격려하고 지원하

면서 시니어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바꾸는 일을 해왔다면,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은 시니어의 사회참여 활동이 보다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새로운 실험이었다.

시니어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의 성격을 갖는 이 프로그램은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2013년도에 처음으로 진행되었는데, 연간 일정은 다음과 같다.

날짜	내용	세부내용
5/2 ~ 6/16	시니어 아이디어 접수	웹페이지 오픈 / 온 오프라인 홍보
		온라인 폼을 통한 아이디어 모집
6/19	아이디어 심사 발표	아이디어 심사, 응모된 아이디어 중 3배수 선정
6/21 ~ 30	아이디어 숙성 워크숍	아이디어 구체화, 실현화를 위한 오프라인 워크숍 진행
	실행계획서 심사	1차 심사 통과한 18건에 대한 실행계획서 심사
7/1	최종 아이디어 발표	최종 아이디어 6건 발표
7/2 ~ 15	청년DOER 모집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조력 분야 담당할 청년 모집
7/20	본선 오리엔테이션	First Impression: 시니어와 주니어의 첫 만남, 제작소 및 사업에 대한 설명
		아이디어 공유, 팀 빌딩 및 팀별 아이덴티티 구축
		팀 지원금 지원
7/27	본선 워크숍	팀 빌딩 II, 팀별 논의 (팀 비전, 미션, 프로젝트 진행 계획표, 예산)
		프레젠테이션
8 ~ 9	중간 점검	프로젝트 실행 과정 및 속도 점검, 소셜 미션 재확인, 세대통합과정 확인
9/28	결선	결과물 발표 및 시상

‘시니어가 만드는 착하고 좋은 세상’이라는 모토를 갖고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시니어의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시니어와 청년세대가 함께 실행하는 프로젝트이다. 사회공헌활동의 세계를 두 세대가 함께 경험하고, 그를 통해서 좀 더 풍요롭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활동을 지원하도록 설계했다.

‘당신의 꿈이 이웃(옆집, 동네, 지역사회 등)을 풍요롭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먼저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시니어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서 이웃과 사회를 더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 시니어의 꿈과 흥미를 활용해서 이웃과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을

시니어를 대상으로 공모했다.

제출된 68개의 아이디어는 서류 심사, 아이디어 숙성 워크숍 그리고 실행계획서 심사를 거쳐 최종 6개 시니어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선정된 아이디어들은 다음과 같다.

- **씨공감** : 공감을 이끌어내는 착한 영화 페스티벌 ‘공감 영화제’
- **(Image Maker) Ready Lady** : 우리 동네 시장에 재미있는 스토리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개성톡톡 동네 작은시장 이미지 만들기 프로젝트’
- **노티산들** : 동네에 새로운 소통채널을 열겠다는 ‘시시콜콜 마실 산드래미’
- **NEDAQ** : 시니어의 경험과 지혜를 스토리 영상으로 재현하는 ‘시니어 나.공.모.창’
- **민씨** : 시설 퇴소 청소년들에게 생활의 기술을 알려주는 ‘홀씨뿌리기’
- **Hidden Teller** : 성북동의 문화유산을 전 세계 방방곡곡에 알리겠다는 ‘성북동 문화유산 알리미’

시니어들의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심사하는 게 1차 관문이었다면, 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도움을 줄 청년 조력자(Doer)를 모집하는 게 그 다음 관문이었다.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참신하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이 54명이나 신청을 했고, 그 중에서 최종 16명의 청년 조력자를 선발할 수 있었다.

청년들과 아이디어 매칭 과정은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사회공헌 아이디어의 현실화에 필요한 기술(skill)이나 요건 등 선택에 필요한 자료를 공개하고 청년 신청자들이 관심 있는 아이디어에 지원하는 형식이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시니어와 청년들이 한 팀을 이루어 활동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자신들이 갖는 세대적인 특성, 다른 세대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소통과 행동 양식의 차이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문화적 차이와 장애를 극복하는 한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약 2개월간의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 기간 동안 여러 차례의 오리엔테이션과 워크숍, 각 팀별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컨설턴트)의 멘토링을 진행했다.

아이디어 접수를 시작한 지 약 5개월이 지난 9월 28일,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최종 결선’ 행사가 진행되었다. 사전 심사, 현장에서 이뤄진 팀별 프레젠테이션 및 현장 심사를 통해 장려상 3팀과 1·2·3 등 각 1팀씩이 선정되었다.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적합성 및 실행력	· 아이디어를 적절하게 구현하였는가? · 아이디어의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행계획과 과정, 수단이 적절하게 연결되었는가?
완성도	· 전체 완성도 대비 구현 정도는 어떠한가?
확장성	· 지속가능한 모델로 확대 재생산 가능성이 있는가? ·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예상되는가?
전달력	· 발표 자료를 잘 정리했고 설득력 있게 발표했는가?

많은 이들의 축하와 부러움 속에서, 성북동의 역사문화유산을 영문책자와 사이트로 제작하여 전 세계의 시민들에게 알리겠다는 성북동 문화유산 알리기 프로젝트 ‘Hidden Teller’가 1등으로 선정되었다.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협동조합 참여 활동은 시니어들에게 분명히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사회공헌·사회참여 활동이다. 하지만, 시니어들은 이러한 활동에 쉽게 다가서기도 힘들며 눈에 띄는 참여 경로가 많지도 않다.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은 시니어도 좀 더 다양하고 친근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실행까지 이어줌으로써 지금까지 다른 프로그램들이 갖지 못한 차별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시니어와 청년 세대의 만남을 통해 ‘세대공감’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이슈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바로 사회공헌활동, 사회참여활동이라고 할 때, 세대소통이나 세대공감은 주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한국사회보다 먼저 고령화와 시니어의 사회참여 문제를 고민해 온 유럽연합은 2012년을 ‘활기찬 노년과 세대 간 결속을 위한 해’로 지정하였다. 그 프로젝트의 부제가 ‘모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Everyone has a role to play!)’였다. 그리고 그 주요 과제 중에는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와 세대 간 결속력 강화가 있다.

세대 간 결속력 강화란 ‘나이 구분 없이 사회구성원 모두가 그들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세대 간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염주희, 2012).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은 어쩌면 추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세대 간 결속력 강화와 세대공감’이라는 이슈를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장치를 통해 접근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3. 시니어 사회공헌활동 문화 확산 방향

지난 6년간 프로그램 진행과정과 결과를 보면, 해피시니어 어워즈는 제2인생 설계의 모델이 될 만한 시니어들을 발굴하고 홍보함으로써 시니어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넓히고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일조해왔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파급력(social impact)을 높이기 위한 확산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말 시상식 행사로 국한되지 않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서 더욱 많은 시민이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시니어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누구나 쉽게 검색해볼 수 있고, 그와 관련된 경험과 고민을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의 필요성도 검토할 때이다(희망제작소, 2013).

다양한 형태의 시니어 사회공헌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 시니어로부터 직접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추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점, 시니어와 청년들의 만남을 통해 세대공감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은 분명 의미 있는 실험이자 도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하고 뜻있는 실험의 단계를 넘어서서 그 성과를 사회적으로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과제는 여전하다. 앞으로 시니어와 청년들의 참여가 지금보다 커지고, 제출되는 아이디어의 다양성과 수준이 높아지며, 아이디어에서 최종 실행까지의 과정과 절차가 더욱 정교하게 구성될 때, 시니어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문화도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염주희, 2012, <EU 활기찬 노년과 세대간 결속을 위한 해 제정 배경과 정책적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8월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금룡, 2012, <은퇴 후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창기, 2013, <시니어 사회공헌활동 사업의 성과와 과제>, 희망제작소
- 지은정 · 금현섭 · 하세운, 2012, <고령화사회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통계청, 2013a, '2013 고령자 통계'
- 통계청, 2013b, '2013년 사회조사 결과'
- 통계청, 2013c, '한국의 사회동향 2013'
- 희망제작소, 2013, <시니어와 사회공헌, 행복한 동행>
- Adler, R. & Goggin, J. 2005, "What Do We Mean by 'Civic Engagement?'" , Journal of Transformative Education, 3(3)

building hope together

더 많은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희망을 나눠주세요.



희망제작소는

지역과 현장 중심의 연구를 통해 살아있는 대안을 만듭니다.
농촌과 지방을 살기 좋은 마을로 가꿔나갑니다.
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세웁니다.
공공리더와 시니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시민의 변혁이는 아이디어를 사회혁신의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1만명 시민의 힘으로 움직이는 시민참여형 연구소입니다.

희망제작소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후원회원이 되시면,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각종 강연, 세미나에 초청합니다.
희망제작소 발간도서 구입 및 교육, 강연 수강 시, 할인혜택을 받습니다.
후원회원을 위한 특별한 회원모임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연간 사업 활동을 정리한 애뉴얼리포트를 매년 보내드립니다.



후원하기

후원회원 가입 문의 : 02-2031-2130 / give@makehope.org
후원계좌 : 하나은행 271-910002-36004 (예금주-희망제작소)

